

한말 醫藥需要를 통해 본 약값과 질병

- 전라도 강진의 朴藥局 사례 -

김덕진*

목 차

1. 머리말
2. 판매 의약의 종류와 가격
3. 의약수요의 여러 실태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후기 이래 약값은 일반 물가에 비하여 비싼 편이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약을 복용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점차 의약소비가 대중화되어가면서, 박약국의 고객 가운데는 부유층도 있었지만, 빈한층도 적지 않았다. 의약의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해 보면, 마진이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박약국의 경우 의약을 팔아서 적지 않은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재력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체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20세기 후반까지 한국의 지방 재력가는 한약방, 그리고 양조장이나 정미소에서 나왔다. 박약국의 판매 장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약은 사물탕인데, 이는 부인병이나 순환기 질환 치료약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폐독산과 쌍화탕인데, 이 두 약은 감기 치료약이다. 그리고 학질 치료약인 금계랍도 많이 팔리었다. 이로 보아 당시 兵營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질병이 순환기 질환, 감기, 부인병, 학질이었다. 한편, 병영 사람들은 박약국에서 보양강장약도 많이 사갔다. 이상의 질병실태와 건강관은 오늘날까지 별다른 차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주제어 : 병영, 약국, 약재, 의약, 약값, 질병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조선왕조는 각 도에 兵營이란 육군 사령부를 두었다. 상비군·행정요원이 상주하고 진상공물·군수물자가 소요되는 병영은 인구가 조밀하고 갖가지 상품이 유통되는 대도회였다. 전라도의 병영은 광주·장흥에 잠시 있었을 뿐 康津縣 古郡內面(현재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에 줄곧 있었다.¹⁾ 강진의 전라병영에서 그곳의 將校層으로 봉직하던 朴氏家가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병영 소재지’에서 운영한 ‘朴藥局’이란 약국이 있었다.²⁾

박약국은 전국 각지에서 각종 藥材를 매입하였다. 매입 내역은 『貿藥錄』이란 장부에 기록되었는데, 1권이 현존하고 거기에는 1892년 4월부터 1902년 10월까지의 매입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³⁾ 박약국은 매입한 약재를 生材로 판매하거나 또는 탕약, 산약, 환약, 단약 등의 醫藥으로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판매 내역은 『製藥冊』이란 장부에 기록되었는데, 현재 1896~1899년의 4년간 것이 남아 있다.⁴⁾

『제약책』을 보면, 4년간 모두 4,069건의 생재·의약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생재는 1,233건으로 전체 판매건의 30%를 차지하고, 의약은 2,836건으로 전체 판매건의 70%를 차지한다. 바로 이 2,836건의 의약 판매 내역을 분석하여 박약국의 賣藥 종류와 가격 및 마진 등을 알아보겠다. 매약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약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의약의 소비실태나 질병의 노출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이다.⁵⁾ 이는 비록 특정한 지역·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기초

1) 강진군·조선대학교박물관, 『전라병영사연구』, 1999.

2)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의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3) 김덕진,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4) 김덕진, 「19세기말 藥局 판매장부를 통해 본 의약 거래관행」,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2018.

5) 본고와 비슷한 사례연구가 일본에서 보고된 바 있다. 히로시마에서 3대가 ‘保生堂’이란

정보량이 많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한국인에게 취약한 질병과 당시 사람들의 건강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고 오늘날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존의 한의학사 연구들은 내부의 변화와 제도사적인 파악에 머무른 측면이 없지 않고, 그에 비하여 생활사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일반인이 한의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한의약에 대한 이용은 어땠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⁶⁾ 이 연장선에서 민간에서 소비되었던 의약의 종류·가격과 고객별·계절별·질병별 수요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경상도 성주에서 유배 생활 중에 의원 노릇을 하던李文樾(1494~1567)을 찾은 환자의 456건 병증을 34개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한 연구가 참고될 따름이다.⁷⁾ 그리고 1914~1935년 서울 보춘의원을 찾은 환자 59,334명의 30대 질환에 대한 통계,⁸⁾ 경상도 달성

한방의원을 운영하면서 1814년부터 1874년까지 60여 년간에 걸쳐 『回生錄』이란 진료 일기를 남겼다. 당시 서민의 의료상황을 알기 위해 1814~1818년 5년간의 일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연평균 380인에게 514건의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 가운데 소화계 질환과 호흡계 질환이 33.1%와 24.1%로 가장 높았고, 순환계 질환은 1.8%에 불과하였다. 이를 해당 지역의 1985년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순환계 질환이 격증하여 26.3%로 2위를 차지하였고, 1위는 호흡계 질환(28.8%)이고 3위는 소화계 질환(19.1%)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를 일본인 전체의 축소판으로 평가하였다(酒井シツ, 『日本疾病史』, 大藏省印刷局, 1993, 117~123쪽). 이러한 데이터의 추이를 受病의 변화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본래 일본인이 순환계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당시 의료수준에서 파악되지 못한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6) 이꽃메,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아카넷, 2008, 138쪽.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 생활사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하다. 이는 폭넓지 못한 자료와 방법론 및 연구자층에서 기인할 것 같다.
- 7)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들녘, 2014, 407쪽. 여기에서는 중기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통증(55건), 열병(34건), 학질(24건), 이질(22건), 부기(22건), 심질(17건), 풍병(17건), 한병(17건) 순이다.
- 8) 앞의 책, 851~853쪽. 여기에서는 감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을 설사, 복통, 해수, 장벽이 차지한다.

의생 全錫禧가 남긴 1922년 진료부를 분석한 상병명 통계도 참고 된다.⁹⁾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의약소비 실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역사학자인 필자가 의약에 대한 식견이 전문하기 때문에 사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그리고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당시대와 현재 사이에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 글을 읽는 이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판매 의약의 종류와 가격

1) 판매 의약의 종류

먼저, 조선후기에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팔려나간 의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의료인들이 활용 가능한 의약은 몇 종이나 되었을까가 우선 궁금하다. 당시 의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혀진 醫書는 명나라 李梴이 편찬하여 1575년(선조 8)에 간행한 『醫學入門』, 1610년(광해군 2)에 許浚에 의해 완성된 『東醫寶鑑』, 황도연이 집필하고 그의 아들 黃泌秀가 1884년(고종 21)에 간행한 『方藥合編』이 대표적일 것이다.¹⁰⁾ 이들 의서의 처방이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tk.com)에 제시되어 있는데, 『의학입문』은 2,393건이고, 『동의보감』은 4,603건이고, 『방약합편』은 684건이다. 『동의보감』의 간행 이후 그것을 축약한 의서, 그리고 地方醫들의 經驗書나

9) 박훈평, 「일제강점기 달성 의생 전석희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32-2, 한국 의사학회, 2019.

10) 관점에 따라 다른 의서를 꼽을 수 있겠으나, 1909년에 서울 낙원동에 普春醫院을 개원하여 작고할 때까지 운영한 金永勳(1882~1974)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았거나 가장 신뢰한 의서가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이었다(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16, 10쪽). 20세기 초에 대구에서 한약업에 뛰어든 분들도 앞의 두 의서 외에 『방약합편』을 통해 처방 내용을 읽었다고 한다(박경용, 『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I -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문화』, 경인문화사, 2009, 62쪽). 따라서 이 세 의서를 추천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單方書, 또한 救急方을 수록한 『山林經濟』 등의 백과전서류 간행은 조선후기의 의약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¹¹⁾ 이들 의서에 수록된 처방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대략적인 상황이 필요하므로 이 정도에서 그치겠다.

대략 이 정도가 당시 소비자가 활용 가능한 의약의 종류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소비하는 의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의서 수록 의약을 수요자가 모두 소비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를 소비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후기에 나온 한글소설 『변강쇠전』을 살펴보자. 『변강쇠전』은 전라도 雲峯縣(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 雍女가 병에 걸린 남편 변강쇠를 살리기 위해 투입한 의약이 한 번 열거되어 있다.¹²⁾ 모두 30종의 의약이 보인다. 이를 필자가 湯藥, 丸藥, 散藥, 膏藥, 飲藥으로 분류하여 아래에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변강쇠전』 속의 의약

湯藥(12種): 龜龍君子湯, 九味羌活湯, 補中益氣湯, 四物湯, 三白湯, 十全大補湯, 六味湯, 二陳湯, 滋陰降火湯, 七氣湯, 八物湯, 黃芪建中湯. 丸藥(10種): 加味地黃丸, 古庵心神丸, 廣濟丸, 百發丸, 脾及丸, 瀉清丸, 蘇合丸, 天乙丸, 清心丸, 抱龍丸. 散藥(5種): 藿香正氣散, 防風通聖散, 香砂平胃散, 五靈散, 荊防敗毒散. 膏藥(2種): 瓊玉膏, 神仙膏. 飲藥(1種): 一清飲.

이들 의약이 소설의 창작자가 옹녀의 헌신적 노력을 묘사하기 위해 단순히 열거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전라도 민간사회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소리의 대중적 성격을 감안하

11) 원보영, 『조선후기 지역 민간의료체계의 발전사』, 『국사관론총』 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

1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홍부전/변강쇠가』(한국고전문학전집 14), 1995, 23쪽.

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전체 30종 가운데 七氣湯, 加味地黃丸, 古庵心神丸, 廣濟丸, 百發丸, 脾及丸, 瓊玉膏, 神仙膏, 一清飲 등 9종을 제외한 나머지 21종을 박약국에서 판매하였던 점도 옹녀가 투입한 의약이 당시 민간에서 유통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판소리 『수궁가』를 보아도, 淸心丸과 蘇合丸 등등의 약 이름이 나온다.¹³⁾ 비록 고가 약이지만 이 의약 역시 『수궁가』를 정리한 申在孝의 거주지·근무지, 즉 전라도 고창이나 전주에서 널리 복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박약국에서 판매한 의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의 의서·약제가 손쉽게 반입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의약이 조제·거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약국에서 취급한 藥種은 매우 다양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4년간 의약의 총 판매건수는 2,836건이다. 판매된 약의 종류는 391종이 기본이다. 여기에 ‘加減’을 한 약의 종류는 600여 종 이상이다. 391종을 유형별로 분류해보자면, 탕약이 201종(51%)으로 가장 많다. 『변강쇠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 산약 113종(29%), 환약 38종(10%), 음약 20종(5%), 단약 9종(2%) 순이다.¹⁴⁾ 기타 10종도 있다. 이상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이다.

<표 2> 박약국에서 판매한 의약의 종류

구분	종류
湯藥 201種	干黃湯, 甘吉湯, 甘草湯, 降火湯, 羌活湯, 開查湯, 建理湯, 健脾湯, 建中湯, 蠲痛湯, 桂當湯, 啓脾湯, 苦甘湯, 苦練根湯, 藿香湯, 驅邪湯, 君子湯, 芎歸湯, 歸脾湯, 歸芍湯, 芩朮湯, 既濟湯, 內托湯, 大補湯, 大黃湯, 導痰蕩, 陶氏導連湯, 陶氏生地芩連湯, 導赤地榆湯, 導滯湯, 獨活奇生湯, 萬全湯, 芒硝湯, 木萸湯, 木通湯, 返魏湯, 防風湯, 白芍湯, 白朮湯, 補心湯, 補元湯, 補陰湯, 補益湯, 補肺湯, 補血湯, 復氣湯, 茯苓湯, 扶陽湯,

13) 안상우, 「판소리 수궁가 醫學記事에 내포된 역사성과 조선 후기 민중 의학지식의 보급 - 김연수 창본 수궁가의 사설을 대상으로」, 『호남문화연구』 47,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2010, 139쪽.

14) 환약과 단약은 크기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약이지만 자료에 충실하고자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p>附子湯, 肥兒湯, 四苓五皮湯, 四六湯, 四物湯, 四七湯, 四合湯, 山茱萸湯(茱萸湯), 散腫潰堅湯, 三九湯, 三禁湯, 三奇湯, 三白湯, 滲濕湯, 三肉二皮湯, 蓼芍湯, 補脾湯, 升麻湯, 升葛湯, 生脈湯, 地黃湯, 生化湯, 舒經湯, 石膏湯, 旋卜花湯, 仙遺糧湯, 先天歸一湯, 蟬退湯, 省大湯, 消氣湯, 升葛湯, 消毒湯, 消濕湯, 麩包湯, 消風湯, 踈活湯, 續命湯, 順氣湯, 升葛湯, 承氣湯, 升麻湯, 升朮湯, 柴葛湯, 柴梗湯, 柴桂湯, 柴翹湯, 柴連湯, 柴苓湯, 柴半湯, 柴補湯, 柴四湯, 柴星湯, 柴芫湯, 柴陳湯, 柴平湯, 柴合湯, 柴胡湯, 腎氣湯, 神朮湯, 十神湯, 雙金湯, 雙補湯, 雙和湯, 阿膠湯, 安理湯, 安神湯, 理中湯, 養榮湯, 養胃湯, 養血湯, 兩花湯, 連理湯, 連瀉湯, 練陳湯, 連喘湯, 練和湯, 靈仙除痛湯, 五子湯, 玉神湯, 溫經湯, 溫膽湯, 溫中湯, 龍膽瀉肝湯, 右歸湯, 牛膝湯, 胃今湯, 胃苓湯, 胃風湯, 流氣湯, 六君子湯, 六味湯, 理健湯, 理氣湯, 理苓湯, 二四湯, 理中湯, 二陳湯, 益氣湯, 益胃湯, 滋坎湯, 滋降湯, 滋陰湯, 芍甘湯, 芍藥湯, 抵聖湯, 正氣湯, 定喘湯, 除濕湯, 皂角湯, 竹茹湯, 只更湯, 至寶湯, 止瀉湯, 至聖湯, 地榆湯, 地黃湯, 陳礬湯, 眞養湯, 眞人養臟湯, 蒼朮湯, 天麻湯, 天香湯, 清肝湯, 清膽湯, 青龍湯, 清上湯, 清胃湯, 清六湯, 清喘湯, 聰明湯, 冲和湯, 澤瀉湯, 八物湯, 八味湯, 八珍湯, 平陳湯, 必甘湯, 夏枯湯, 解毒湯, 解語湯, 解鬱湯, 香葛湯, 香附湯, 芦會湯, 化毒湯, 和中湯, 活神湯, 活血湯, 黃芩湯, 黃連湯, 回七湯, 回香湯</p>
<p>散藥 113種</p>	<p>輕金一字散, 鷄鳴散, 瓜蒌散, 藿苓散, 藿正散, 芎茶散, 芎蘇散, 芎芷散, 金當散, 金正散, 金換散, 內消散, 內托散, 爐甘石散, 茶調散, 當歸散, 導毒散, 導赤散, 蔓荊子散, 麥門冬散, 蟠蔥散, 撥雲散, 栝蠟散, 白生散, 白雲散, 白朮散, 栝蠟散, 鼈甲散, 保命散, 扶危散, 佛手散, 不換金散, 四苓五皮散, 瀉白散, 四生散, 山茱萸散, 散藥, 殺蟲散, 蓼橘散, 三湯散, 生脈散, 辰益散, 生化散, 惺惺散, 星香散, 消驚散, 逍遙散, 消積散, 消蟲散, 消風散, 順氣散, 柴芫散, 神功散, 神解散, 十奇散, 十補散, 十宣散, 雙金散, 雙散散, 連魏散, 獵蟲散, 苓橘散, 靈石散, 靈合散, 五苓散, 五聖散, 五積散, 五行散, 玉屏風散, 玉眞散, 溫大散, 龍骨白芩散, 龍石散, 二母散, 二香散, 益生散, 益元散, 益黃散, 一字輕金散, 錢白散, 展益散, 正氣散, 正香散, 鈞藤散, 鈞錫散, 芷貝散, 辰益散, 擦牙散, 蒼柏散, 清胃散, 吹喉散, 太乙散, 通聖散, 通順散, 退退散, 八正散, 敗毒散, 平胃散, 下積散, 下蟲散, 合掌散, 解毒散, 香山散, 香蘇散, 香平散, 玄胡索散, 荊蘇散, 荊敗散, 化生散, 和解散, 還精發腎散, 黃柏散, 回生散</p>
<p>丸藥 38種</p>	<p>桂干丸, 啓脾丸, 滾痰丸, 貫衆丸, 歸茸丸, 雷丸, 膽包丸, 萬消丸, 麥門冬丸, 蜜導丸, 百中丸, 補元丸, 補陰丸, 不易丸, 肥兒丸, 瀉青丸, 茯苓丸, 燒鍼丸, 蘇合丸, 柴芫丸, 腎氣丸, 神保丸, 神仙退腎丸, 神聖丸, 十將軍丸, 靈神丸, 五子丸, 溫臟丸, 牛抱丸, 妊子丸, 折驚丸, 天乙丸, 清心丸, 太和丸, 抱龍丸, 芦會丸, 化痰丸, 豁痰丸</p>
<p>飲藥 20種</p>	<p>活命飲, 固飲子, 補元飲, 蓼蘇飲, 消毒飲, 柴蘇飲, 柴胡飲子, 安胎飲, 安蛔飲, 連翹飲, 鬱金飲子, 二母飲, 人蔘飲子, 截瘡飲, 貞元飲, 清肝飲, 清脾飲, 清肺飲, 平血飲, 下半飲</p>
<p>丹藥 9種</p>	<p>光明丹, 萬靈丹, 寶丹, 復元丹, 水土丹, 神效丹, 如意丹, 寧神丹, 回生丹</p>
<p>기타 10種</p>	<p>金水煎, 二八煎, 眼藥, 寧神膏, 蒼朮膏, 蛔蟲藥, 腫藥, 膏藥, 金鷄納, 無憂膏</p>

이를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이들 약이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되었거나 박약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학입문』이나 『동의보감』 같은 의서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서에 없는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한 약국에서 4년간 600여 종류의 의약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당시 유통된 의약 종류가 매우 많았음을 말해준다.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藥方文 묶음에 130여 종의 약방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제약책』에 등장하지 않는 의약이 절반 가까이 된다.¹⁵⁾ 그것까지 합산하면 박약국에서 취급한 의약이 최소한 700여 종에 이른 셈이다. 이렇게 약종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의약 제조술이 높았고 민간 의약수요가 높았음을 반영한다.

셋째, 그 약들을 박약국에서 전적으로 제조한 것인지, 아니면 타 약국에서 매입한 것도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의국·약국에 의약을 판매한 기록은 보여도 ‘他局’에서 매입한 기록은 金鷄蠟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약재를 가지고 다니는 藥材行商이나 行醫는 많이 보여도 시판용 약을 취급하는 賣藥行商¹⁶⁾이나

15) 약방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약책』에 보이지 않는 의약으로 加味歸茸煎, 加味歸茸湯, 加味理陰煎, 加味補元化毒湯, 加味備急丸, 加味有情丸, 加味朮附湯, 甘龍湯, 甘砂湯, 疳瘡散, 羌活愈風湯, 桂干湯, 桂附丸, 供辰丹, 交感理中湯, 起枕散, 大成回春丸, 大營煎, 龍腦川芎丸, 理和湯, 拔根散, 拔痔散, 白和丹, 保命湯, 補四飲, 補腎地黃湯, 四物黃枸丸, 四神散, 三節丸, 三合湯, 生血潤膚飲, 生化飲, 善附雙和湯, 消淋散, 神效千捶膏, 十二星丸, 雙補膏, 雙補丸, 延壽丹, 延益丸, 五靈煎, 五聖膏, 五子元, 玉顏膏, 益氣補血湯, 益氣湯, 益母散, 益母草膏, 磁銀膏, 調脾補陰湯, 調血飲, 酒煮當歸丸, 止泄散, 枳朮湯, 天地煎, 鐵骨丸, 清金降火湯, 清金滋水飲, 青雲散, 通和丸, 八寶迴春湯, 八珍散, 學仙丹, 紅雲散 등이 있다.

16) 19세기까지는 내국인 藥商은 잘 보이지 않지만, 청이나 일본 등 외국인 약상이 약재와 함께 가벼운 환약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판매나 시장판매를 한 사례는 찾아진다 (淸藥商多賣藥種而去 雖曰牛黃抱龍丸·牛黃清心丸·鹿躬香蘇合圓. 『觀瀾齋日記』 1886년 12월 22일).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 내국인 약상이 벽촌까지 다니며 시판용

賣藥支店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약을 박약국 자체에서 제조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렇게 보면 당시 박약국의 제약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후손가에서 지금까지 각종의 의서¹⁷⁾와 여러 권의 약방문 묶음¹⁸⁾을 소장하고 있고, 1896년에도 의서를 매입¹⁹⁾하였던 사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넷째, 탕약·음약·전약은 첩약제로서 구매자가 집에 가져가서 끓여 복용한다. 하지만 산약·환약·단약 등은 박약국에서 직접 제조해야 하는 의약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약을 제조하는 시설이나 도구 및 인력이 박약국 안에 구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매자들로부터 處方劑를 ‘作末’, 즉 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섯째, 여러 형태의 약 가운데 탕약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이 팔리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각 가정마다 탕약기기가 비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湯法도 문헌서나 의서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탕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매약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탕약에 비해 산약·환약·단약은 소비자가 복용과 휴대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민간에서 유통되는 의약과 박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 가운데 박약국에서 4년간 판매한 약종은 本方만 391종이나 되었다.

약을 팔았다(藥商 卽大田朴準陽夫妻也 服藥藥名 通滯丸·瀉痢全快丸·靈神丸及仁丹等屬也. 『崔炳彩日記』 1932년 9월 13일).

17) 필자가 2012년 박약국 후손가 소장 고문서를 조사할 때 『東醫寶鑑』, 『醫學入門』, 『補瀉方單』, 『麻科會通』, 『種痘方書』, 『痘科彙編』, 『麻方統彙』, 『小兒方』, 『萬病回春』, 『胎產秘書』, 『腸腑總論』, 『經驗方』, 『家庭療法』 등의 의서가 소장되어 있었다. 이들 의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18) 박약국 후손가에서 여러 권의 약방문 묶음, 즉 성책된 ‘처방집’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모두 遺失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5권의 簡札帖 가운데 2권의 뒷면에 移書된 약방문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이 130여 종에 이른다.

19) 『무약록』 1896年 11月 3日 “醫書冊一卷”.

2) 판매 의약의 가격

이어서 그러한 의약에 대한 값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藥價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16세기에 출간된 『攷事撮要』에 266종의 기성 처방이 실려 있으며, 1회분 약값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1회분 益元散이 쌀 2되 1홉, 藿香正氣散이 쌀 1되 8홉이었다.²⁰⁾

서울 거주 양반인 兪晩柱(1755~1788)가 남긴 『欽英』이란 일기를 보면, 몇 종류의 약가가 보인다. 그 가운데 앞에서 말한 『변강쇠전』과 박약국 장부에 나오는 약을 중심으로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益元散 1貼, 0.03兩
- ② 藿香正氣散 1貼, 0.12兩
- ③ 回生散 1貼, 0.15兩
- ④ 香砂平胃散 1貼, 0.09兩
- ⑤ 順氣散 1貼, 0.15兩

益元散과 香砂平胃散 1貼이 각각 0.03냥과 0.09냥(常平通寶, 1兩=10錢=100分)이었고, 藿香正氣散과 回生散·順氣散 1첩이 각각 0.12냥과 0.15냥하였다. 당시 쌀 1말 값이 0.25냥(저가) 또는 0.5냥(중고가)이었으니, 위의 정기산·회생산·순기산 값은 1첩에 쌀 0.5말 가량 되었다.²¹⁾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쌀 한 되[升]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0.5말은 성인 1인의 5일 양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약 값이 쌀 값에 비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여, 이로부터 100여 년 지난 박약국의 약가를 보자.

20)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들녘, 2014, 721쪽.

21)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 『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8, 132~133쪽; 김호, 「약국과 의원」,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2, 역사비평사, 2000, 278쪽.

- ① 益元散 1貼, 0.05兩(0.1兩)
- ② 藿香正氣散 1貼, 0.18兩(0.2兩)
- ③ 回生散 1貼, 0.12兩
- ④ 香砂平胃散 1貼, 0.17兩
- ⑤ 加味順氣散 1貼, 0.36兩

익원산을 1첩에 0.05냥 또는 0.1냥에, 곽향정기산을 1첩에 0.18냥 또는 0.2냥에, 회생산을 1첩에 0.12냥에, 향사평위산을 1첩에 0.17냥에, 가미순기산을 1첩에 0.36냥에 각각 팔았다. 이로 보아 약가가 회생산을 제외하고 1백 년 전에 비해 최소 50% 이상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인상률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병영 장교로 근무하던 某人의 아들이 1857년(철종 8)에 병영의 許文贊家(약국 경영자로 추정)에서 荊防敗毒散을 1첩에 0.1냥에 매입하였다.²²⁾ 이로부터 50여년 지나서 박약국은 형방패독산을 0.24냥에 팔았다. 그 사이에 약가가 2.5배 상승된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100년간 약가의 추이를 아래의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100년간 약가의 추이

藥名	俞晩柱 (18세기말)	許文贊家 (1857년)	朴藥局 (19세기말)
① 益元散 1貼	0.03兩		0.05兩(0.1兩)
② 藿香正氣散 1貼	0.12兩		0.18兩(0.2兩)
③ 回生散 1貼	0.15兩		0.12兩
④ 香砂平胃散 1貼	0.09兩		0.17兩
⑤ 順氣散 1貼	0.15兩		0.36兩
⑤ 荊防敗毒散 1貼		0.10兩	0.24兩

22) 吾往于兵營許文贊家 荊防敗毒散二貼制來 價則二錢也(『咸豐七年丁巳日記』, 국립중앙도서관).

그러면 박약국의 다른 의약의 값은 어느 정도였을까? 개별 의약에 대한 값을 보면, 貼當 0.1냥 이하는 극소수였다. 대부분은 0.2~0.3냥 선이었으니, 이 값이 대다수 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가격대였던 것 같다. 당시 전라도의 전주, 임실, 능주에서 生鷄 1마리 값은 0.2냥이었고, 生雉 1마리 값은 0.3냥이었으니,²³⁾ 이를 통해 당시 대중 의약 값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加味聰明湯, 加味補元湯, 川芎茶調散, 加味釣藤散 등 첩당 1냥 넘는 의약도 있었고, 金防四物湯, 加味地黃湯, 加味理健湯처럼 2냥을 넘어가는 의약도 있었다. 뒤이어 제시될 당시 인건비를 감안하면, 첩당 1~2냥 의약은 고가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의약의 값이 단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藿香散은 0.18냥과 0.2냥 등 2개의 가격이 존재하였다. 심지어 荊敗散의 경우 무려 4개의 가격이 존재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미보원탕의 경우 첩당 0.23냥, 0.74냥, 0.77냥, 0.81냥, 0.86냥, 1.33냥 등 천차만별이었다. 加味平胃散은 1첩에 0.11냥, 0.13냥, 0.15냥, 0.16냥, 0.2냥, 0.22냥, 0.26냥에 각각 팔렸다. 이러한 차이가 고객 신용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조제 성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加味’ 또는 ‘加減’한 의약은 덜고 더한 약재에 따라 값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 1첩 가격과 2첩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香葛湯의 경우 1첩은 0.16냥에 팔았는데, 2첩은 그 보다 0.02냥 낮은 0.3냥에 팔았다. 이는 다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판촉 전략 또는 다량 구매 고객에 대한 우대책이었을 것 같다. 이러한 고정되지 않은 가격이 소비자로 하여금 박약국을 방문할 때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박약국 ‘지인’의 주선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였을 것 같은데, 그 ‘편지’는 일종의 주문장 역할을 하였고 현재 40여 장이 남아 있다. 장기 체불된 고액 外上도 박약국의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고신용자의 소개나 부탁 행위를 부정적 측면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23) 『韓國 地方史資料叢書』 8, 事例篇①, 여강출판사, 1987.

약가의 지수를 추정해보기 위해 당시의 노동력 단가를 알아보겠다. 박약국은 雇軍을 투입하여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였고, 직조 등의 가내 수공업에도 고군을 투입하였다. 일일 가계부에 해당되는 『用下日記』를 보면, 1897~1899년에 日雇價(1일 일꾼 인건비)가 기록되어 있다. 治圃 고군에 0.1냥, 織縷·彈綿 고군에 0.2냥, 耘田·打租 고군에 0.5냥, 移種 고군에 2냥이 각각 일당으로 지급되었다.²⁴⁾ 일본인이 1904~1905년 조사한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를 보면, 강진 인근의 일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진도 0.2~0.3냥, 장성 0.3~0.5냥, 광주 0.4~0.7냥, 나주 0.5냥이었다. 강진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예천 朴氏家の 1890년부터 1900년까지 10년간, 1일 노동력 평균 임금은 0.66냥이었다.²⁵⁾ 이렇게 보면, 19세기말 일꾼의 하루 인건비가 대략 0.5냥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통 의약의 1첩 값이 0.2냥 가까이 되었으니, 당시 물가에 비하여 약값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의약 마진(margin)은 얼마나 되었을까? 1833년에 醫人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藥價 분쟁을 통해 그 경향을 먼저 알아보자. 전라도 礪山府에 사는 李吉良이 며느리 병환을 치료하는 동안 의인 邊得中에게 150냥을 의상하였다. 이때 이길량은 “藥價豈至百餘金乎 以乾材價計之 不過七十兩 從當以七十兩備報”라고 말하며, 약가 지불을 지연시켰다. 乾材價에 비하여 약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말이다. 이에 변득중이 관아에 체불된 약가를 추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礪山府使는 製藥價가 건재가보다 현저하게 높고, 이는 ‘行醫賣藥者’들이 널리 행하는 관행이라며 관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淸心丸 재료는 每丸 0.3·4냥 들어가지만 賣藥者는 모두들 1냥을 받아 두 세 배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일반적 사례도 들었다. 蘇合丸도 그런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변득중이 黃龍丸 1劑(20첩) 값을 120냥으로 했다면서, 의인의 丸藥價가 비록 건재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24) 김덕진,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219~220쪽.

25) 安秉直·李榮薰, 『맛질의 農民들 - 韓國近世村落生活史』, 일조각, 2001, 187쪽.

어찌 10배나 되냐고 하였다. 이런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이길량이 주장한대로 70냥은 안되고, 의인의 노고를 감안하여 70냥에 38냥을 추가하여 지불하라고 여산부사는 판정하였다.²⁶⁾ 이상을 통해 비록 떠돌이 의사들이 정한 약가로서, 약국에서 공론으로 정한 약가는 아니지만, 의약의 마진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박약국 사례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의약 1첩은 얼마이고, 그것을 제조하는데 원가는 얼마인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다. 특정 의약에 대한 1첩 값, 약방문, 약재가를 모두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재에 대한 『제약책』 속의 판매가와 『무약록』 속의 매입가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균일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약재 가운데 몇 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약재의 판매가와 매입가 비교

藥材名	單位	販賣價(兩)	買入價(兩)
乾干	1斤	1.6	1.0~1.5
輕粉	1兩	4.0	1.6~2.2
桂枝	1兩	0.2	0.1
苦練根	1兩	0.05	0.04~0.05
藿香	1兩	0.25	0.19
官桂	1兩	1.2	0.36~1.0
槐花	1兩	0.08~0.15	0.05~0.07
枸杞子	1兩	0.22~0.25	0.06~0.22
金鷄臙(의약)	1卜	0.3	0.04~0.1
金銀花	1兩	0.15~0.25	0.04~0.1
吉更	1兩	0.09	0.02
雷丸	1兩	0.5	0.35~0.46
當歸	1兩	0.08~0.1	0.04~0.05

26) 『(益山)公私隨錄』, 1833년 2월 29일(驪江出版社, 『韓國地方史資料叢書』 報牒篇10, 1990, 124~131쪽).

唐木香	1兩	0.3~0.35	0.15~0.25
唐麝香	1卜	6.0	4.0
唐只角	1斤	2.8	0.8~0.9
唐川芎	1斤	1.7	1.3~1.67
馬牙硝	1兩	0.2	0.1~0.11
芒硝	1兩	0.03	0.01
薄荷	1斤	0.3	0.2
半夏	1斤	1.8	0.5~1.0
白芨	1兩	0.5	0.12
白礬	1兩	0.08	0.04
白茯苓	1斤	6.0	2.14~2.3
白芍藥	1兩	0.06	0.01~0.04
白芷	1兩	0.06	0.03
使君子肉	1兩	0.55	0.5

이상을 보면, 약재의 판매가가 매입가보다 전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은 식물류·광물류·동물류, 그리고 국내산·수입산, 또한 인근산·원지산을 가리지 않는다. 그 가운데 苦練根은 양당 0.04~0.05냥에 사들여 0.05냥에 팔았으니 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 이는 주변에서 매입한 것이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에 수입의약인 金雞臘이나 수입약재인 唐只角은 복당 0.04~0.1냥 또는 0.8~0.9냥에 사들여 0.3냥 또는 2.8냥에 팔았으니 가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서울이나 경상도 동래 및 전주·공주·대구 약령시 등 멀리서 반입하여 운송비가 많이 드는 것이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대략 약재의 판매가는 매입가보다 2~3배 높은 편이었다.²⁷⁾ 의약의 값은 전문가의 지식이 추가되어 약재의 값보다 더 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1914년

27) 외형상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2~3배 나지만, 실체는 그만 못하다. 왜냐하면 생재를 사서 약재로 쓰기 위해 손질하고 말리고 나면 상당량이 버려지고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당귀를 예로 든 “시중에 당귀라는 약재와 치료약으로 쓰기 위하여 수리한 당귀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볼 때에는 거의 같지만 실제 내용이 있어서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3~4배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참고할 수 있다(강병수, 『전통 한의학을 찾아서』, 동아문화사, 2005, 299쪽).

신문에 매약의 이익이 원가의 5배 또는 몇 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²⁸⁾ 그 결과 박약국은 약재와 의약을 팔아 재력을 축적하였고, 그 재력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채를 운영하여 자산을 늘려나갔다.

3. 의약수요의 여러 실태

1) 고객별 수요

이제 『製藥冊』에 기록된 판매현황을 토대로 당시 병영지역의 의약소비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의 방문회수와 매입금액, 매약의 월별 또는 계절별 추이, 많이 팔린 약종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객별 의약소비 실태부터 알아보자. 19세기말 의료시설은 진료·투약과 매약을 겸하는 醫局, 매약만 하는 藥局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일종의 ‘醫藥分業’ 체제였다. 당시 병영의 영향권 안에는 매우 많은 의료시설이 있었다. 웬만한 동리마다 1~2개소의 의료시설이 있을 정도였다. 박약국이 위치하고 있는 병영 소재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896~1899년의 4년간 모두 1,372명의 고객이 박약국을 방문하여 4,069건의 약재·의약을 매입해 갔다. 이 名數와 件數는, 19세기말의 병영 인구가 4,280명이라는 점과 ‘병영지역’에 복수의 의국·약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²⁹⁾ 높은 빈도라고 생각한다. 1,372명의 고객은 의약업 종사자, 친인척, 유력계층, 그리고 서민대중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혼자 사는 여성, 머슴 등의 임노동자, 무당, 재인, 장애인, 천한 표현의 이름을 가진 사람, 천인, 승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³⁰⁾ 이들의 거주지

28) 양정필, 「한약업자의 대응과 성장」,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아카넷, 2008, 251쪽.

29) 『湖南邑誌』(1872년 무렵), 『兵營營誌』.

30) 김덕진, 「19세기말 藥局 판매장부를 통해 본 의약 거래관행」, 255쪽.

를 보면, 박약국이 존재하는 ‘병영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강진현 전역에 분포하고 더 나아가 병영 인근의 해남·장흥·나주·영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고객의 구성과 분포는 박약국의 제약수준이 높고 취급의약이 다양하거나 고객관리 역량이 뛰어났고, 당시 사람들의 의약 소비가 대중화되었다고 해석하게 해준다.

이들 1,372명의 고객은 1인당 년 0.74회 박약국을 이용하였다. 그 가운데 4년간 고작 1~2회 방문한 고객이 적지 않았고, 1년에 1~2회 와서 1~2종의 약재·의약을 매입해 간 고객도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1첩에 0.2~0.3냥 하는 저가의 의약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1첩에 0.6냥을 넘는 大補湯·補元湯·六味湯 등의 고가의 의약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임노동자의 일당이 0.5냥을 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위급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어 있더라도 의약 복용을 지속하기가 어렵거나 최대한 자제하고 아니면 다른 곳 의약을 복용하다 박약국을 들리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매년 10회 내외 박약국을 찾아와서 각종 의약·약재를 매입해 가고, 어떤 때는 1회에 3~4종을 매입해 간 고객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총 매입가가 100냥 가까이 되는 고객도 있었으니, 이 시기 박약국의 年雇價(1년 머슴 인건비)가 30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간의 의약소비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간 10회 내외 구매자는 박약국의 주요 ‘단골’이었음에 분명하다. 그 가운데 10회 이상 구매한 고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박약국의 년 10회 이상 구매고객

年度	住所	姓名	回数	品目	값(兩)
1896	邑內	金大圭	13	附子理中湯·加味當歸散·雙補湯·清脾飲·雙和湯·加味雙和湯·麥蘇飲·開查湯·四物湯·加味柴陳湯·安胎飲·生材·藥材	26.36
	古郡內 南門	姜淳可	12	牛黃抱龍丸·加味釣藤散·麥蘇飲·釣錫散·益黃散·天麻湯·藥艾·當歸	6.56

	古郡內 博洞	金一淑	11	通聖散·防風通聖散, 生材·朱砂·麝香·中柑·藥艾	93.20
	古郡內 路上	奉基淑	10	十全大補湯·敗毒散·茱萸湯, 生材·輕粉·唐麝香·官桂·黃丹·乾干·片腦·靈芝	47.20
	古郡內 三仁	李學先	10	藿正散·如意丹·膏藥, 輕粉·藥艾·寒水石·五信子	5.82
1897	古郡內 博洞	金一淑	18	加味柴四湯·防風通聖散·栝蚘散·麥歸養榮湯·雙和湯·截瘡飲·通聖散·敗毒散, 生材·芒硝·蕪荑·樞子·人蔘	68.52
	古郡內 樂山	申亨佐	15	加味金正散·加味通聖散·藿正散·防風通聖散·不換金散·惺惺散·消毒升葛湯·燒鍼丸·雙和湯·敗毒散·荊防敗毒散, 生材·馬牙硝	22.28
	波之大 冠洞	吳子三	10	加減活命飲·加味活命飲·爐甘石散·防風通聖散·舒經湯·仙方活命飲·通聖散, 生材·杜冲	40.44
1898	列樹 龍井	金允汝	10	加味佛手散, 當歸身, 佛手散, 麥蘇飲, 生清, 烏梅, 敗毒散, 荊敗散	9.85
	古郡內 博洞	金一淑	14	加味大連翹陰, 加味養榮湯, 加味通聖散, 膏藥, 當歸鬚散, 防風通聖散, 生血地黃湯, 十補散, 安蛔理中湯, 通聖散, 敗毒散, 合掌散, 荊敗散, 輕粉, 防風, 生材, 藥艾, 連翹, 赤芍藥, 胡桃	61.01
1899	庵川 松丁	金德行	36	加味金當散, 加味金正散, 加味芩朮湯, 加味大補湯, 加味四物湯, 加味十奇散, 加味養榮湯, 加味六君子湯, 加味至聖湯, 芎歸湯, 金匱當歸散, 補元飲, 蔘芪補益湯, 蔘芪補肺湯, 蔘苓平胃散, 十宣散, 十全大補湯, 安胎飲, 龍骨白朮散, 至聖湯, 甘草, 麥門冬(去心), 白朮, 朱砂, 黃檀	94.95
	庵川 介山	金文玉	13	加減練陳湯, 加味金正散, 加味導毒散, 加味補益湯, 加味養榮湯, 加味二香散, 加味平胃散, 加味和解放, 退退散, 敗毒散, 荊敗散, 牛黃, 蒼朮	11.5
	列樹 龍井	金允汝	13	藿正散, 金鷄臘, 萬消丸, 雙和湯, 如意丹, 白茯苓, 生清, 藥艾, 人蔘, 陳皮	21.63
	古郡內 博洞	金一淑	19	加味香蘇散, 啓脾丸, 金鷄納, 四物湯, 麥蘇飲, 雙和湯, 天麻湯, 和解放, 官桂, 防風, 生材, 人蔘, 炮附子, 胡桃	62.6
	古郡內 上林	朴敬實	12	加減藿正散, 加味萬全湯, 加味五苓散, 加味天香湯, 膏藥, 萬消丸, 芳芷香蘇散, 燒鍼丸, 雙和湯, 八味湯	16.64
	古郡內 三仁	車仁郁	11	加味羌活湯, 加味活血湯, 疎風活血湯, 生材, 藥艾	41.8

박약국을 매년 10회 이상 방문하여 의약·약재를 매입해 간 사람으로 姜淳可, 金大圭, 金德行, 金文玉, 金允汝, 金一淑, 朴敬實, 奉基淑, 申亨佐, 吳子三, 李學先, 車仁郁 등 12인이 보인다. 이 가운데 김대규와 오자삼을 제외한 10인이 ‘병영지역’ 사람이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병영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 김일숙은 박약국에서 4년간 매년 10회 이상 각종 의약과 약재를 사갔고, 1896년에는 무려 93.2냥 어치를 매입해 갔고 1897년에는 무려 18회나 방문하였다. 박약국의 인척인 그는 박약국의 큰 고객임에 분명하지만, 순수 소비자라기보다는 중간 상인 정도로 보인다. 이 외에 강순가, 박경실, 봉기숙, 신형좌 등도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둘째는 의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 파지대면 관동(현재 도암면 덕서리 관동마을)에서 살고 있는 오자삼은 박약국을 4년간 19회 방문하여 약재를 주로 매입하였고, 의약도 매입해 간 바 있다. 1897년에는 10회 방문하여 40.44냥 어치의 加減活命飲·加味活命飲·爐甘石散·防風通聖散·舒經湯·仙方活命飲·通聖散 등의 의약과 生材·杜沖 등을 사갔다. 그는 그곳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박약국에서 매입한 약재로 의약을 조제하여 팔았고 조제하기 어려운 의약은 박약국에서 매입하여 되팔았던 것이다. 김대규³¹⁾, 김덕행 등도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셋째는 위급한 환자를 둔 사람이 있다. 열수면 용정(현재 작천면 용상리 용정마을)에 사는 김윤여는 1898년에 10회, 1899년에 13회 방문하여 9.85냥, 21.63냥 어치의 의약·약재를 각각 사갔다. 특히 1899년에는 金鷄臘을 6회나

31) 강진현 읍내면에 사는 김대규가 언제부터 박약국을 방문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96년에 박약국을 총 13회 들리어 附子理中湯, 加味當歸散, 雙補湯, 清脾飲, 雙和湯, 加味雙和湯, 蔘蘇飲, 開查湯, 四物湯, 加味柴陳湯, 安胎飲 등의 의약과 각종 약재를 26.36냥에 사갔다. 읍내면 사람이 읍내에도 약국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연으로 현재 거리로 14km 떨어진 병영으로 이를 사러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수 소비자일 수 있고 의약업 종사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는 이듬해 1897년에 1회 방문한 이후 더 이상 박약국을 들리지 않았고, 부의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사갔다. 또한 고군내면 삼인리에 사는 차인옥은 1899년에 11회 방문하여 41.8냥 어치의 의약·약재를 사갔는데, 加味羌活湯을 9월 7일 20첩, 9월 16일 20첩, 9월 27일 20첩, 10월 19일 10첩, 10월 22일 20첩, 10월 7일 20첩, 11월 12일 10첩, 11월 17일 10첩 등 8회에 걸쳐 무려 130첩을 사갔다. 이렇게 보면, 김윤여와 차인옥에게는 금계랍이나 가미강활탕이 시급하게 필요한 위급한 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약국의 고객 가운데는 1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이가 있지만, 수차례 방문하는 ‘단골’도 적지 않았다.

2) 계절별 수요

이어, 계절별 의약소비 실태를 알아보자. 우선, 4년간의 전체적인 판매현황을 알아보겠다. 장부에 기재된 판매건수는 모두 4,069건이다. 이는 대부분 의약과 약재의 판매건수이다.³²⁾ 그 가운데 의약의 판매건수는 전체의 70%인 2,836건이고, 약재의 판매건수는 전체의 30%인 1,233건인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6>이다.

<표 6> 총판매의 건수·금액

	件數	金額
醫藥	2,836件(70%)	3,896兩(55%)
藥材	1,233件(30%)	3,233兩(45%)
계	4,069件(100%)	7,129兩(100%)

그리고 위 <표 6>에 보이듯이, 전체의 판매총액은 모두 7,129냥이다. 이 가운데 의약의 판매액이 전체의 55%인 3,896냥이고, 약재의 판매액은 전체의 45%인 3,233냥이다. 이를 통해 박약국의 당시 主 수입은 의약품판매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민간에서의 자체 약재수요가 적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32) 이 외에 馬藥(말 치료약)을 3회, 鉛鐵을 1회, 白紙를 4회 판매한 바도 있다.

그러면 총 판매액 가운데 순이익은 얼마나 되었을까? 원가 대비 판매 이익률을 만약 20%로 잡는다면, 4년 순수입은 1,426냥이고, 1년 순수입은 356냥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제약책』에 제외되어 있고 『각처각국 거래책』에 수록되어 있는 각처의 의국·약국에 판매한 것까지 합치면 박약국의 매출액과 순 수입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다음으로 월별 판매 현황을 알아보겠다. 당시 장부상의 기록 월일은 陰曆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4,069건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월별의 판매 건수

春		夏		秋		冬	
1월	248件(6%)	4월	350件(9%)	7월	366件(9%)	10월	233件(6%)
2월	367件(9%)	5월	250件(6%)	8월	389件(10%)	11월	274件(7%)
3월	537件(13%)	6월	359件(9%)	9월	323件(8%)	12월	373件(9%)
계	1152件(28%)	계	959件(24%)	계	1078件(26%)	계	880件(22%)

월의 경우 3월이 537건으로 1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8월이 389건으로 10%를 차지하였다. 2월, 4월, 6월, 7월, 12월도 높은 편이다. 반대로 1월(248건, 6%), 5월(250건, 6%), 10월(233건, 6%)은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계절의 경우 춘계에 1,152건으로 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반대로 동계에 880건에 22%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러한 계절별 경향은 의약 판매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춘계에 30%, 동계에 20%였다. 문제는 어느 월이나 계절에 어떤 의약이 많이 팔려나갔느냐는 것인데, 현재의 정보로서는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을 통해 성묘를 가고 洞祭를 거행하는 1월, 이양(모내기)을 하는 5월, 수확을 하는 10월에 가장 적은 고객이 박약국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2~4월에 가장 많은 고객이 의약이나 약재를 구매하러 박약국을

방문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의약에 대한 높은 수요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높은 수치가 이 시기에 질병 발생률이 가장 높았느냐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100년 전 한국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월이 2~4월(양력)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³³⁾ 2~4월의 높은 질병 발생률 때문에 박약국의 의약 판매도 그때 늘었다고 해석되어진다.

이처럼, 박약국을 찾는 고객은 2~4월에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발병률의 결과로 보여진다.

3) 의약별 수요 - 최다 노출 질병과 그 의미

마지막으로, 의약별 소비실태를 알아보자. 여기에서는 박약국의 판매장 부를 통해 어떤 약재나 의약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약재의 경우 팔려나간 것을 植物類, 鑛物類, 動物類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박약국에서 판매한 약재

植物類	甘(大甘, 中甘, 小甘), 甘草, 姜黃, 乾干, 桂枝, 桂皮, 苦練根, 藿香, 官桂, 槐花, 枸杞子, 金櫻子, 金銀花, 桔梗, 南星, 當歸, 大風子, 大黃, 杜沖, 麥門冬, 木瓜, 牡丹, 木通, 木香(唐木香), 蕪荑, 薄荷, 半夏, 防風, 白芨, 白先皮, 白芷, 白朮, 寶豆, 伏苓(土伏苓, 白茯苓, 赤茯苓), 蓬朮, 附子(官附子, 白附子, 香附子, 炮附子), 榧子, 檳榔, 使君子(使君子肉), 山查肉, 山茱萸, 細辛, 蘇葉, 續斷, 升麻, 柴菀(唐柴菀), 柴胡, 辛夷, 罌粟殼, 藥艾, 連翹, 靈芝, 烏梅, 五味子, 五信者, 龍腦, 龍眼肉, 牛膝, 遠志, 乳香, 肉桂, 肉蓯蓉, 益智仁, 人參(錦參), 芍藥(白芍藥, 赤芍藥), 猪苓, 丁香, 枳殼(枳實, 唐枳殼), 知母, 地榆, 芝草, 地黃, 秦朮, 陳皮, 蒼朮, 川芎(唐川芎, 倭川芎), 川烏, 川椒, 清, 草烏, 沈香, 澤瀉, 巴豆, 貝母, 芩(生芩, 熟芩), 何首烏(赤何首烏), 杏仁, 玄胡索, 血竭, 胡桃, 胡桐淚, 胡椒, 芦會, 紅花, 黃芩, 黃芪, 黃丹(黃丹, 唐黃丹), 黃桃仁, 黃連(倭黃連), 黃栢, 黑丑.
鑛物類	輕粉, 爐甘石, 芒硝, 密陀僧, 白礬, 石雄黃, 朱砂, 水銀, 靈砂, 月石, 硫黃, 自然銅, 珍珠, 青礫石, 貝石, 寒水石, 滑石.
動物類	鹿角, 斑貓, 鱉甲, 犀角, 麝香(唐麝香), 阿膠, 龍骨, 牛黃, 全蟲.

33) 황상익,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268~269쪽. 저자는 당시 봄철의 높은 사망률 원인을 ‘春窮’, 즉 식량의 부족으로 보았지만, 질병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판매장부에 명시된 약제 이름은 130종 가까이 된다. 이 가운데는 토산뿐만 아니라 중국산과 일본산도 포함되어 있고, 식물류 초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물류와 동물류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여러 약제를 일괄하여 ‘약재’나 ‘山藥’ 또는 ‘生材’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어떤 약제를 어떻게 판매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제의 판매를 통해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약제가 많이 팔려나갔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질병이나 건강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약제를 통한 소비실태의 추적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하지만 의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박약국 고객들은 한 의약을 어느 정도 구매하였을까가 우선 궁금하다. 그들의 의약 구매량을 보면, 환약이나 단약의 경우 많으면 10개 또는 그 이상이지만 대부분은 1~3개를 사갔다. 그리고 탕약이나 산약·음약의 경우 10첩, 15첩, 20첩 등 다량을 사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1~2첩 등 소량을 구매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면 이 1~2첩은 무엇을 의미할까? 金允植(1835~1922)이 남긴 일기 『續陰晴史』를 보면, 의약을 복용한 기사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대부분 한 번에 1~2첩을 복용하였다. 예를 들면, 충청도 면천군에 유배가 있던 丁亥年(1887) 9월 10일에 독감인 듯 한기가 있어 荊防敗毒散 2첩을 복용하였고, 11일과 12일에 연이어 폐독산 2첩을 각각 복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辛卯年(1891) 6월 28일에는 柴陳湯 2첩 가운데 1첩을 밤에 복용하였고, 30일에는 한기가 있어 加味雙和湯 3첩 가운데 1첩을 밤에 복용하였고 나머지를 7월 1일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1첩씩 나누어 복용하였다. 결국 1~2첩은 보통 1일 또는 1회 복용분이었다. 1첩이라면 한 번 달여 먹고 뒤이어 재탕하고, 2첩이라면 아침에 1첩을 달여 먹고 점심에 또 1첩을 달여 먹은 후 저녁에 아침과 점심 것을 합쳐 재탕하여 먹었을 것 같다. 따라서 박약국 고객의 구매패턴을 통해 당시 병영지역의 의약 소비자가 소수의 부유층은 물론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다수 일반 서민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박약국 고객들은 어떤 의약을 가장 많이 구매하였을까? 4년간 1~2회 팔린 의약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빈번하게 팔린 의약도 많았는데, 그런 의약을 통해 당시 병영 사람들의 질병실태를 알아볼 수 있다.³⁴⁾ 이에 많이 팔려나간 의약을 1위부터 10위까지 <표 9>에 정리해 보았다.

<표 9> 박약국의 의약별 판매 회수

順位	醫藥名	回數	主 效能
①	敗毒散	208回	感冒
①	四物湯	208回	補血
③	雙和湯	119回	補養
④	金鷄蠟	68回	瘡疾
⑤	和解散	52回	感冒
⑤	大補湯	52回	補養
⑦	芎歸湯	51回	婦人病
⑧	通聖散	48回	風熱
⑨	益元散	43回	痢疾
⑩	安胎飲	37回	婦人病

위 표를 보면, 의약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의약으로는 ①敗毒散(208회)이 있다. 패독산은 本方 외에 加味敗毒散, 連翹敗毒散, 人蔘敗毒散, 荊防敗毒散(荊敗散) 등을 포함한다. 패독산은 여러 附方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主治症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傷寒·傷風·感冒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³⁵⁾ ⑤和解散(52회)도 감모 치료약이다. 감모의 한방

34) 어떤 藥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아무런 식견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한의학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계에서 어떤 약의 효능에 대해 異論이 있다면, 본고의 논지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통설을 따랐다.

35) 李漢求·鄭昇杞·李衍九, 「敗毒散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8-1, 大韓韓醫師協會, 1987.

치료약으로 이 외에 瀉白散, 蓼蘇飲, 雙和湯, 柴苓湯 등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³⁶⁾ 그러한 의약도 박약국에서 적지 않게 팔았다. 따라서 패독산이나 화해산 등이 필요한 감모가 당시 병영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었고, 당시 병영 사람들의 건강관리에서 감모 치료가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패독산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린 의약으로 ①四物湯(208회)이 있다. 사물탕은 본방 외에 加減四物湯, 加味四物湯, 膠艾四物湯, 金防四物湯, 柴胡四物湯(柴四湯), 人蔘四物湯, 知柏四物湯, 地榆四物湯 등을 말한다. 사물탕은 『동의보감』 내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쓰인 처방으로 부인병이나 중풍 치료 및 보양제로 활용되었다.³⁷⁾ 또한 사물탕은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유발되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에도 활용된다.³⁸⁾ 따라서 사물탕에 대한 높은 판매회수는 그 약이 필요로 한 부인병이나 循環器 질환에 병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가운데 순환기 환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 濟衆院을 찾은 환자 가운데 순환기계 질병 환자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⁹⁾ 박약국과 제중원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까? 제중원의 서양의사가 한국인의 순환기계 질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한다.

패독산과 사물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의약이 ③쌍화탕(119회)이다. 쌍화탕은 “心力俱勞로 기혈이 모두 상하거나 혹은 房室 후 勞役하거나 노역 후 房事를 범한 경우, 大病 후 虛勞로 氣乏 · 自汗 등의 증상”에 효능이

36) 조항성, 「感氣의 漢方治療 效能에 關한 臨床的 研究」, 『한국한의학회연구소 논문집』 1-1, 한국한의학회, 1995.

37) 安泰亨, 「東醫寶鑑에서의 四物湯의 活用」, 『대한한의학회지』 1-1, 대한한의학회, 1990. 尹用甲, 「四物湯의 活用に 關한 考察」(東醫寶鑑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회지』 6-1, 대한한의학회, 1998.

38) 남창규 · 김영균 · 문병순, 「四物湯이 血管內皮細胞에 미치는 影響」, 『大韓韓方內科學會誌』 20-1, 대한한방내과학회, 1999.

39) 황상의,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347쪽.

있다고 한다.⁴⁰⁾ 따라서 피로회복이나 보양강장을 위한 약이 쌍화탕이었다. 이와 효능이 비슷한 ⑤大補湯(52회)이나 補元湯(14회) 및 補益湯(14회) 등이 많이 팔리었던 점도 주목된다. 1첩에 0.73냥을 넘는 고가의 대보탕이 많이 팔리었고, 그것도 한꺼번에 10~20첩 또는 30~40첩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사실이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사물탕까지 감안 하면 保養藥이 병영 사람들에게 널리 팔려나갔음을 알 수 있다.⁴¹⁾

그 다음으로 ④金鷄蠟(68회)이 많이 팔리었다. 서양에서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퀴닌(키니네)이 개발되어 개항 이후 1880년 무렵부터 한국에 금계랍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후 1890년대에 이르면 대표적인 수입품이 되었다. 박약국은 판매장부에, 상당수 언론사는 신문 광고에 어려운 ‘蠟’자 대신 ‘納’자를 써서 ‘金鷄納’이라고 썼다. 금계랍은 瘧疾 치료약으로 이용되었다. 앞에서 말한 김윤식도 독감이나 학질을 앓을 때 금계랍을 복용한 바 있고, 나주의 林氏家에 소장되어 있는 간찰 가운데 어린 여아가 금계랍을 3·4병 먹고서 ‘雙螯’, 즉 학질에서 치유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간찰이 있다.⁴²⁾ 금계랍 외에 ⑧通聖散(48회)과 함께 ⑨益元散(43회) 및 羌活湯(18회)이 적지 않게 팔렸으니, 이는 당시 痢疾이나 유행성 感冒 등의 전염병이 나돌았음을 알려 준다. 이렇게 보면, 당시 병영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병 가운데 학질 등의 전염병이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이 외에 ⑦芎歸湯(51회)이나 ⑩安胎飲(37회) 등도 적지 않게 팔리었는데, 궁귀탕이나 안태음 모두 앞서 소개한 사물탕과 함께 婦人病 치료약이다.

40) 한국한의학회연구원(www.kiom.re.kr), KOM 웹사이트, 전통의학정보포털오아시스, 한약처방, 雙和湯.

41) 1920~30년대 신문에 大力丸, 益智補心元 등 정력제 광고가 빈번하게 게재되었는데 (김명환, 『모던 씨크 명랑』, 문학동네, 2016, 245쪽), 그런 전국적 현상은 병영 사람들의 높은 보양약 구매력의 확대판이었다고 보여진다.

42) 女兒幼稚時 腹則雙螯 適隨母在其外家 連服金鷄蠟三四瓶後 永無影形矣(나주문화원, 『羅州宗家簡札集』, 2017, 351쪽). 간찰집에는 ‘蠟’을 탈초하지 못하여 빈칸으로 두었다.

이상을 통해 당시 병영 사람들은 감기·순환기병·학질·부인병 등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고, 보양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음도 알 수 있다.⁴³⁾ 그렇다면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질병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선 데라우치문고에 수록된 조선후기 편지글에 감기, 기관지염, 뇌경색과 뇌출혈, 후담증, 천식증, 설사병, 신경통과 류마티스관절염, 복통, 종기, 눈병, 위장병 등이 거론되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⁴⁴⁾ 이는 논증 없이 열거 수준에 불과하지만, 편지를 수수하는 특수층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재효본 『변강쇠가』에 편두통, 수전증, 학질 등등 91가지의 병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당시 조선 사람을 괴롭히던 일상적인 병 대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⁴⁵⁾고 하였다. 또한 제증원에서 진료한 알렌은 외래환자의 질병양상을 발열, 소화기계 질병, 순환기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계 질병, 림프선계 질병, 비뇨생식계 질병 및 매독, 전신성 질병, 새로운 질병, 눈병, 귓병, 종양, 골 관절 및 건 질병, 외상, 기형, 결핵조직 질병, 피부병, 부인병 등 18가지로 분류하였다.⁴⁶⁾ 그리고 또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조선 전역의 위생 상태를 “격언·속담·민간치료·미신치료·관행·일반풍습”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1915년에 『朝鮮衛生風習錄』으로 발간하였다. 그 가운데 ‘민간치료편’에는 신경계병, 안병, 호흡기병, 소화기병, 피부병, 외상, 임신출산, 기생충병, 화류병, 나병, 전염병, 기타 제병 등 12개 질병에 대한 민간 의료적인 치료방법이 열거되어 있다.⁴⁷⁾

43) 일본에서 에도시대에 가장 많이 팔린 약은 ①反魂丹(가슴통, 복통, 소아병), ②反金丹(해독, 진정제), ③地黃煎(기혈), ④地黃丸(강장제), ⑤奇應丸(氣付, 복통, 소아병) 순이었다(立川昭二, 『江戸病草紙』, 筑摩書房, 1998, 392~393쪽). 우리와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단약이나 환약이 많이 팔렸고 수차를 이용하여 약재를 분쇄하여 散藥(가루약)을 만들었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보여진다.

44) 황재운, 『조선시대의 질병과 의약』, 『경남대학교 데라우치문고 간찰 속의 조선시대』, 국외소재문화재단, 2014, 135쪽. 편지 속 질병을 언급한 논저는 이 외에 더 있지만 단편적이어서 열거는 하지 않겠다.

45)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돌베개, 2013, 364~365쪽.

46)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346쪽.

이상의 많은 질병을 병영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질병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감기·순환기병·학질·부인병 치료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투입하였다. 이는 병영 사람들이 감기 등의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한 질병의 극복을 위해 보양약을 복용하였다고 해석하게 해준다. 이러한 병영 사람들의 질병실태와 건강관은 기존의 조사나 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박약국 사례연구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다시 말하면 박약국 사례를 통해 드러난 병영 사람들의 질병실태가 당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 추세이고, 그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사망률 1위는 암이고 그 다음의 2위와 3위를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차지하고 있으니,⁴⁸⁾ 100년 전 사람들이 암을 주목하지 못하였던 점과 그간의 의학발전이나 건강증진을 감안하면 그때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병과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대략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19세기말~20세기초 열강의 조사자들은 병 이름만 열거할 뿐 무슨 병이 한국인에게 가장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한 미국인 알레이나 일본인 고이케 같은 의사는 한국인의 내과 질병 중 소화불량을 최고로 쳤고 그 요인을 저열한 문화수준 탓으로 돌렸을 뿐이다.⁴⁹⁾ 당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자가 치료를 하고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어떤 증상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를 가장 괴롭힌 질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결론과 함께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47) 한지원, 「1910년대 『朝鮮衛生風習錄』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148쪽.

48) 황상익,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68~69쪽.

49) 박윤재, 「청심보명단 논쟁」,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아카넷, 2008, 264~265쪽.

4. 結論

조선후기 이래 의료 시스템의 발달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의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약국이 1896~1899년 4년간 판매한 의약은 본방이 391종, 부방까지 합치면 600여 종 이상이나 되었다. 본방 가운데 탕약이 201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여 압도적 비중을 점하였고, 나머지는 산약, 환약, 음약, 단약 순이었다. 판매된 의약의 값은 첩당 0.1냥 이하 또는 1~2냥도 있지만, 0.2~0.3냥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판매량은 회당 10첩 이상도 있지만, 하루분에 해당되는 1~2첩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꾼 하루 인건비가 0.5냥을 넘어서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번 의약을 복용하려면 하루 인건비의 절반이나 전액을 지불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藥價는 일반 물가에 비하여 비싼 편이어서 서민들이 약을 복용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약소비 대중화의 연장선에서, 박약국의 4년간 고객 1,372명 가운데는 부유층도 있었지만 빈한층도 적지 않았고, 위급한 질병에 노출된 순수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상업이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중간상도 있었고, 1년에 1~2회 와서 소량을 사간 사람도 있지만 년 10회 이상 와서 다량을 사간 사람도 있었다.

약값은 단일하게 형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복수로 존재한 것도 있었는데 이는 약재의 ‘加減’이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결과였다. 약재의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해 보면, 2~3배 차이가 나 마진이 높은 편이었는데 주위에서 매입한 것보다 약령시 등 외부에서 반입한 것이 더 높은 편이었다. 의약의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해 보아도 마진은 더 높은 편이었다. 연평균 매출액이 1,782냥이었기에, 마진율을 20%로 잡는다면 연수입이 356냥 정도 되었다. 그래서 박약국은 약재와 의약을 팔아서 적지 않은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재력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20세기 후반까지 한국의 지방 재력가는 韓藥房, 그리고 釀造場이나 精米所에서 나왔다.

박약국은 4년간 4,069건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의약 판매건수는 전체의 70%인 2,835건이다. 이 건수를 월별로 분류하면 2~4월(음력)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당시 사망률에 대한 연구도 2~4월(양력)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높은 질병률이 박약국의 의약 판매건수를 올렸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600여 종의 의약 가운데 四物湯이 박약국의 판매 장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약이었다. 사물탕은 부인병이나 순환기 질환 치료약이고 보양제였다. 사물탕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이 敗毒散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雙和湯이고, 和解散도 5위를 차지하였다. 패독산·쌍화탕·화해산은 감기 치료약이다. 그리고 金鷄蠟이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수입산으로 학질 치료약이었다. 이로 보아 당시 병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질병이 감기, 순환기 질환, 학질, 부인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영 사람들은 박약국에서 고가의 大補湯 등 保養強壯藥도 많이 사갔고 그런 경향은 사물탕을 통해서도 표출되었다. 이상의 질병상태와 건강관은 오늘날까지 별다른 차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益山)公私隨錄』
『觀瀾齋日記』
『貿藥錄』
『續陰晴史』
『製藥冊』
『崔炳彩日記』
『咸豐七年丁巳日記』
『湖南邑誌』
『韓國 地方史資料叢書』
『홍부전/변강쇠가』

한국전통지식포탈(www.koreantk.com)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

2. 논문

-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の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 _____,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 _____, 「19세기말 藥局 판매장부를 통해 본 의약 거래관행」,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2018.
- _____,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 김동윤,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6.
- 김 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 『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8.
- _____, 「약값과 의원」, 『조선시대 생활사』(한국고문서학회) 2, 역사비평사, 2000.
- 남창규·김영근·문병순, 「四物湯이 血管內皮細胞에 미치는 影響」, 『大韓韓方內科學會誌』 20-1, 대한한방내과학회, 1999.

- 박훈평, 「일제강점기 달성의생 전석희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32-2, 한국의사학회, 2019.
- 李漢求·鄭昇杞·李衍九, 「敗毒散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8-1, 大韓韓醫師協會, 1987.
- 안상우, 「관소리 수궁가 醫學記事에 내포된 역사성과 조선 후기 민중 의학지식의 보급 - 김연수 창본 수궁가의 사설을 대상으로」, 『호남문화연구』 47,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2010.
- 安泰亨, 「東醫寶鑑에서의 四物湯의 活用」,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1, 대한한의학방제학회, 1990.
- 원보영, 「조선 후기 지역 민간의료체계의 발전사」, 『국사관론총』 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
- 尹用甲, 「四物湯의 活用に 關한 考察」(東醫寶鑑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6-1, 대한한의학방제학회, 1998.
- 조항성, 「感氣의 漢方治療 效能에 關한 臨床의 研究」, 『한국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1, 한국한의학연구원, 1995.
- 한지원, 「1910년대 『朝鮮衛生風習錄』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3. 단행본

- 강병수, 『전통 한의학을 찾아서』, 동아문화사, 2005.
- 강진군·조선대학교박물관, 『전라병영사연구』, 1999.
- 국외소재문화재단, 『경남대학교 데라우치문고 간찰 속의 조선시대』, 2014.
- 김명환, 『모던 씨크 명랑』, 문학동네, 2016.
- 나주문화원, 『羅州宗家簡札集』, 2017.
- 박경용, 『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I -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문화』, 경인문화사, 2009.
-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들녘, 2014.
- _____, 『호환 마마 천연두』, 들베개, 2013.
- 安秉直·李榮薰, 『맛질의 農民들 - 韓國近世村落生活史』, 일조각, 2001.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아카넷, 2008.
-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 _____,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立川昭二, 『江戸病草紙』, 筑摩書房, 1998.

酒井シヅ, 『日本疾病史』, 大藏省印刷局, 1993.

Abstract

Price of Medicine and Illness based
on the Medicine Demand in Late Joseon
- The case of Park's Pharmacy in Gangjin, Jeolla Province -

Kim, Deok-jin*

The price of medicine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price level since the latter part of Joseon. It was not easy for common people to purchase medicine and take it. With the gradual popularization of medicine consumption, however, the customer list of Park's Pharmacy included members of the poor class as well as the affluent ones. When the production costs of medicine were compared with its selling prices, its margin was rather high. Park's Pharmacy was thus able to accumulate considerable wealth by selling medicine and used the wealth to purchase land and run a private loan. For this reason, local men of wealth stemmed from herbal medicine shops, brewery and rice mills in Korea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Samultang made the most appearance in the books of Park's Pharmacy, and it was a treatment for female disorders and circulatory system diseases. It was followed by Paedoksan and Ssanghwatang, both of which were used to treat a cold. Geumgyerap was also sold a lot to treat malaria.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ople at the barracks were most exposed to circulatory system diseases, cold, female disorders, and malaria those days. The people at the barracks also purchased a lot of invigorating health tonic. Such conditions of illness and views of health have lasted till today with no big differences.

Key Words : Barracks, Pharmacy, Medicine, Medicinal stuff, The price of medicine, Disease

*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of Social Studies Education, Professor

<필자소개>

이름: 김덕진

소속: 광주교육대학교

전자우편: kdj1344@gnue.ac.kr

논문투고일: 2020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28일